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음 깨기

눈물로 위로했던 순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Billy Graham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집회 후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고로 잃은 슬픔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설명이나 신학적인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라함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잠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제 슬픔을 함께 느껴 준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눔] 누군가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 준 것이 위로가 된 경험이 있나요?

[나눔]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조언을 먼저 하는 편인가요, 공감하는 편인가요?

교회행사

3월

1일	진공첫 6기 모집 마감
5-21일	해비타트 사역
7일	부부사랑 학교 개강
8일	진공첫 6기 시작
12/14일	1차 세례 교육
19/21일	2차 세례 교육
21일	세례 문답식
22일	세례식
29일	종려주일 /성찬식
30일-4일	고난주간/고난주간말씀과 기도

4월

5일	부활주일
11일	신중년 아우회
24-25일	목자 수련회

경배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소식

1. 세례식

3월 22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답 교육 시간: [청장년]: 세례/입교/학습 / 1회차 - 3월 12일(목) 저녁 7시 30분 / 2회차 - 3월 19일(목) 저녁 7시 30분 / [청소년]: 세례/입교/학습 / 1회차 - 3월 14일(토) 오후 3시 / 2회차 - 3월 21일(토) 오후 3시 [유아 세례] 교육- 3월 21일(토) 오후 3시 / *문답식은 3월 21일(토) 오후 5시부터 세례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태국 해비타트팀 출국

옴꼬이 예수원 여자기숙사 리모델링 해비타트 팀이 21일까지 여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출국할 2차와 3차 팀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화남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1. 선교는 무릎으로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2. 남아공 아가페교회 성전 및 교육관 건축허가가 주님의 때에 잘 나와 건축할 수 있도록
3. 남아공 갈보리교회에 청소년 학습센터 시작할 수 있도록
4. 사역 점검 및 사역 계획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5.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패밀리 학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문장 큰 울림

“겸손과 오래 참음은 점점 커지는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

-존 웨슬리(John Wesley)-

[요한복음 11장 33~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일곱 표적 가운데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사실과 두 자매의 간곡한 요청을 알고 계셨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요 11:4)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곁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의 애곡도 특히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사로에게 오셨다는 것은, 혹시라도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곧 절망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1. 비통히 여기시고(33절)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냅니다.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왔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으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통곡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비통히 여기셨다” 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비통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ἐμβριμάομαι)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엄히 경고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강렬하게 격동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통곡을 보시며, 죽음이라는 권세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거룩한 분노와 깊은 탄식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유대인들의 슬픔은 장례식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슬픔 속에 빠지게 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시며 깊은 탄식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2. 눈물을 흘리시더라(35절)

“눈물을 흘리시더라”로 번역된 단어는 에다크뤼센(ἐδάκρυσεν)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한 번 사용된 특별한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엠브리마오마이”가 죽음의 권세에 대한 격동하는 감정과 분노를 나타낸다면, “에다크뤼센”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통곡하는 울음이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남겨진 사람들의 깊은 슬픔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세 번 등장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눅 19:41-42). 둘째,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히 5:7). 셋째,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6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눔]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3. 예수님은 아셨다(16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16절)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에 짓눌린 인생을 해방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죽게 만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분노하시면서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시며 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슬픔 앞에서 먼저 공감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시기 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는가”(37절)라며 비난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나눔] 우리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인가요?

[나눔]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는 교훈 / 요한복음 11장 28~37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눔

믿음의 눈을 허락하소서

장애물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기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실력을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